

연중 제 27 주일(군인주일)

제 1 독서 : 하바1, 2-3 ; 2, 2-4

제 2 독서 : 2디모1, 6-8, 13-14

복 음 : 루가 17, 5-10

순정이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루가 17, 10).



전교의 달을 맞으며



김기곤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

창세기 1장 26절은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로 가르친다. 창세기 저자의 이 가르침은 인간존재의 기초와 목적을 동시에 시사해준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요, 하느님에게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느님에게로 창조된 존재! 이는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되도록 불리운 존재라는 의미에서 한편으로 인간 존엄성의 숭고한 근거를 들어내 주는 가르침이다(사목헌장 9항). 즉 인간은 그 존재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를 하느님께로 온전히 개방하도록 배려해주는 신의 호의 때문에 그가 어떤 처지, 신분, 상태에 있든 관계없이 인간이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되도록 불리운 존재란 결국 인간의 완성(행복, 구원)이 ‘부르심과 응답’이란 통교 차원에서 하느님에게로 부르시는 신적 초대에 인간이 기꺼이 순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분히 말해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 완성이 이렇게 근원적으로 신의 호의적 부르심과 인간의 순수한 응답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하느님과 인간의 상호통교에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음에 따라 둘 사이를 온전히 중재하고자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인간 세상으로 파견되어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1디모 2, 4-7). 그리스도는 지상 생활을 통하여 인간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의 호의적 부르심을 직접 들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마태 22, 1-10) 당신의 생(生)을 다하여(십자가상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부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심으로 부활에 이르는 인간 완성을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삶(죽음과 부활)은 사도 바오로의 고백(로마 8, 32-39)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된 하느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발로이다. 그래서 신적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조건으로 피로워 몸부림치는 인간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새로운 빛이요 무한한 기쁨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셨다. 다시 말해 그리스

도는 이제 세상 누구에게나 길, 진리, 생명(요한 14, 6)으로 전파되어야 할 분이 되셨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들의 신적 사랑에로의 초대(복음선포)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상교회에 근본적인 사명이자 우선적인 임무(마르 16, 15)이며 당연한 일로 주어졌다(1고린 9, 16). 이에 교회의 일치적 활동은 공동체인 신자 개인이든 하느님 사랑에 무감각 무반응하는 사람들을 그분 사랑에로 초대하는 일이다.

이 초대는 본성상 사랑의 행동이 함께 따를 때라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복음으로 초대될 사람들-특히 자기 스스로 인간이 갖는 지고한 신적 가치성을 망각한 채 사는 자, 혹은 본의 아니게 또는 타인에 의해 인간 존엄성이 상실, 억압, 박탈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누구나 예외없이 주위와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에게로 초대되어 그분과 친교적이고 이웃과 개방적인 삶을 영위하도록(앞서 말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사랑의 생활을,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봉사의 생활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복음의 종처럼...



여 명

길 잃은 대자를 찾아 나서자

한상갑(바오로)

* 대자의 죽음 소식

얼마 전에는 젊은 대자(代子)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싸늘하게 식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대학병원 영안실을 찾는 발걸음이 무거운 수밖에 없었다. 영안실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내외가 함께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들의 젊음으로 보아서 아이들도 어릴텐데 하는 생각에 우선 인간적인 눈물이 앞을 가렸다. 빈소를 찾은 교우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연도를 시작했다. “예수의 애런히 여기시는 덕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죽은 이나시오와 바실리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연옥의 형벌을 면하고 길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연도가 끝나고 그의 형과 소주를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참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다. 죽은 이나시오가 평소에 주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 말은 마치 “네 아우(대자)가 어디 있느냐”는 하느님의 물음으로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대자의 신앙생활에 무심했던 대부, 그는 과연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는 자책이 뇌성처럼 우렁우렁 들리는 것이었다.

* 추수한 것은 많은데

전교의 달인 10월을 맞으며 대자들의 이야기를 꺼낸 연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 농장에서 제법 추수를 하기는 했어도, 그 결실 관리에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추수한 알곡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근년에 들어와서 천주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굳이 그렇게 된 배경을 꼽아보자면, 1970년대 이후에 정의의 편에서 온 교회의 사회 참여 모습도 그 하나랄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천주교 신앙을 권유받은 이웃들의 반응은 호의적인 경우가 많다. 지금은 바빠서 그러지만 언젠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주교회에 나가겠다는 대답들이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다가 전교 일선에서 애쓰는 레지오 마리에 활동 또한 팔목할만하다고 말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교구마다 새로 본당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문제로 제기되는 하나는 냉담자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다.

* 네 대자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사람에게 대부(대모)를 세우게 한다. 대부모의 역할은 새로운 입교자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가 해야 할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세례예식의 한 구성요소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부와 대자의 관계가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린다면 냉담자 문제도 조금은 완화되련만,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냉담자가 늘어나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앞으로 남고 뒤로 밀린다.”는 말로 표현하면 조금 지나칠런지 모르겠으나, 새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냉담자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다며, 지금은 냉담하지만 때가 되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온다고 말할 사람도 있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니다. 우리가 함께 걱정하자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상, 그가 하느님 안에서 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교의 달에 말씀을 전하는 일 못지 않게 하느님의 곁에서 떨어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찾자는 것이다. 우선 대자·대녀부터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한가족이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자는 것이다.



숲정이 산책



군인주일을 맞이하여

국방색의 작은 예수



35사단 중경 성당을 찾아서

한국의 남자라면 가장 활력있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시작할 나이에 군대라는 특별한 공동체에 들어가 삶과 형제애를 배우게 된다.

금년에도 맞이하게 된 군인주일. 전주시 송천동에 자리한 35사단 소속 중경 성당 군중신부인 황양주(안토니오) 신부와 임철민(발렌티노), 송기웅(클레멘스), 안철민(아브라함) 사병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신부님을 소개해주시지요.

황 신부: 저는 광주대학교 교수 소속으로 87년에 서품, 90년부터 군사목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부대에서 2년 근무하다가 금년 8월13일에 이 35사단으로 전임되어 왔습니다.

사회자: 중경 성당의 현황을 알려주시겠어요?

황 신부: 간부신자들이 30세대 정도이고 현역군인은 10-20명 정도, 훈련병은 100여명이 모일 때도 있지만 그중 5-10%만이 신자입니다.

사회자: 현재 하시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황 신부: 매주일 미사와 수요일 오후에 교리공부,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구역 순회 미사, 주일학교 미사가 있고 임실·금마에 부대에도 미사를 드립니다. 또 외딴 곳에 있는 해안 초소, 격오지 부대를 찾아가 위문하고 책, 잡지, 음식 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안에 있는 영창이나 의무대를 방문하여 면담하기도 합니다.

사회자: 군사목하시면서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지요.

황 신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신자 아닌 군인이 사제관에 왔을 때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사모님이라고 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부와 목사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회자: 사병들과의 만남에서 느끼시는 점은 어떤 것인지요.

황 신부: 먼저 분단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병들과 1달에 1-2번 만나게 될 때면 때로는 자동차 안에서, 화장실 앞에서, 휴전선의 철조망 앞에서 고백 성사를 주게 되는데 그런 순간에 짙은 형제애와 사랑을 느낍니다. 사제로서의 보람도 느끼게 되지요. 또 병담자, 조당자들을 만나 대화하게 될 때면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에 커다란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사회자: 군중신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황 신부: 이곳에서의 사제의 역할은 큼니다. 우선 존재

자체로서 의미를 줍니다. 나의 복장, 태도를 통해 하느님을 알게 하고 종교에 첫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그리고 사병들의 의지가 되고 우체부 역할도 해줍니다. 또한 전교의 황금어장이기에 군중신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힘들 때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제 사병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과 조국에 대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사병②: 훈련 때는 부모님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착심도 생겼습니다. 가까이에서 지낼 때 느끼지 못했던 형제애가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마음에 남은 일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지요.

사병②: 폭한기 훈련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구보로 먼길을 가게 되었는데 체력이 약한 동료가 쓰러졌을 때 그를 부추기면서 끝까지 행진했던 것이 감동적이었고 형제애,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사회자: 군중신부님께 바라는 것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사병②: 신부님과 면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미사 때만 만나기에 대화하기가 어색합니다.

사병①: 길으로 뵈을 때에는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사병③: 계급으로 만날 때는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사제로서 만날 때는 포근함과 따스함을 느낍니다.

사회자: 끝으로 교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황 신부: 사병들이 다녔던 본당에서 명절 때나 본명 축일 때 간단한 위문편지를 보내준다면 그들의 생활과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사병③: 교구 본당과 군 본당과의 만남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리교육, 교회 행사, 친교의 면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황 신부: 군인들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군인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회자: 군인주일을 맞아 신부님과 사병 형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중신부와 사병들 안에서 또 하나의 사랑의 역사를 창조해가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나라의 모든 군중신부와 군인신자들, 사병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특 집 ①

시한부 종말론,

최근 전국 각지에서 열풍처럼 확산되고 있는 '92년 시한부 종말론, 10월 종말론'이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종말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시한부 종말론'의 허황된 실체를 3회에 걸쳐 간단히 살펴본다.

1. 열풍처럼 확산되는 '92년 종말론'

요즈음 우리는 어디를 가나 '92년 10월 28일 휴거' '92년 예수님 공중 재림' 등 세상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과 '하늘 문이 열린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휴거' 등 종말론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과 전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이나 전단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92년에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할 것이며, 그때에 성도들은 하늘로 들어올림(휴거-携擧)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 것이고 세상에는 적(敵)그리스도가 출현하여 7년간의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올림을 받으려면 자기를 종단에서 주는 인침(印針)을 받아야만 말씀은사, 선교 물질 축복 등 7가지 능력과 휴거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허황된 '시한부 종말론'은 세기가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세기말적 증후군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미 세상의 종말을 예고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증인'과 '안식교'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역시 당시 기성교회 신자들의 생활을 크게 위협하면서 많은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일으켰었다.

최근 '92년을 종말 시한으로 삼는 종말신앙은 지난 '86년 미국인 선교사 펠시 콜레에 의해 한국에 전달되었다. 그는 '86년 5월 방한 한국에 36일간 머물면서 '시한부 종말론'의 영적 선풍을 일으켰다. 그 무렵 이장림 목사는 펠시 콜레의 '천국신비체험기'인 '100가지 천국 비밀' 등 다수의 책들을 번역 출판하여 삼시간에 선풍을 일으켰다(50만부 이상 팔림). 또한 이장림 목사는 펠시 콜레가 일으킨 종말과 영적 선풍을 교회 제도 속에서 조직화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는 말을 줄여



'다미 선교회'를 만들었다.

이 무렵부터 '92년 종말론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과 심각한 환경오염,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말세의 징조로 예를 들면서 사람들 속에 파고들어 지금은 10만명 정도가 '시한부 종말론'을 추종하고 2만명 정도가 열성 신도이며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지상에서의 삶과 미래를 포기한 사람이 5천명 정도라고 한다.

시한부 종말을 추종하는 종단도 '다미 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등 50여개의 종단이 있고, 다미계열 외에 독립된 시한부 종말론을 합치면 전국에 2백 50여개의 교회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2. 왜 '92년 10월인가?

'92년 안에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종단도 많지만 많은 종단에서는 그 시한을 10월로 잡고 있고 '다미 선교회'에서는 10월 28일 24시라고 구체적인 시각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왜 '92년 10월이라고 주장하는가? 이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니엘 8장 13-14절, 사도행전 17장 26절 등의 성서구절을 제시하면서 하느님께서서는 인류의 연대와 종말의 때를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팔보종합아채효소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정주시·군 고창) 1개점
(김제시·군 부안) 1개점
(임실, 순창) 1개점
(진안, 장수, 무주) 1개점
전북지사 (0652) 74-1161

팔보종합아채효소

건강을 도와주면서
아름다움을 가꾸어줍니다.
손 석 중(안셀모)
김 제 월(인젤라)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전북지사 (0652) 74-1161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오 한)
황 인 재(모나카)
전주시 전통 남문앞
☎ 84-7294

방송앰프 시공의 선두업체
인켈PA·비디오 촬영 전문

백운전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님(데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그 허황된 실체...

예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92년을 세상 종말의 시기로 보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 언급된 하느님의 세상 창조기간은 곧 인류의 역사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은 하느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날 쉬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느님의 시간으로는 6일 동안 지속되고 그후에는 안식의 하루가 있게 될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2 베드 3,8)라는 성서구절을 억지로 맞추어, 창조의 1일을 1,000년으로 계산하여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의 시간으로는 6일, 인간의 시간으로는 6천년 동안 계속되고(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그후에는 안식의 천년왕국(묵시 20)이 있게 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시기는 아담이 창조된 때부터 6천년이 되는 서기 2천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99년에 인류 역사는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이전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게 되므로 '99년에서 대환란의 시기인 7년을 빼면 세상 종말의 시작은 '92년이라는 것이다.

**이 종말론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과 심각한 환경오염,
사회적 병리현상 등을
말세의 징조로
예를 들면서 사람들 속에
파고든다.**

또한 이들은 19C 중엽 아일랜드 출신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에 의해 시작된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 예수의 재림을 이증으로 설명한다. 즉 그리스도의 첫번째 재림은 공중의 일정 지점까지 내려오며 이 공중 재림시 죽음에서 부활된 의인들과 지상의 변화된 신도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 7년 동안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지상에서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재림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이고, 그때에 예수는 하늘의 교회와 함께 영광중에 지상에 재림하시어 적들을 멸망시키고 천년간의 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왜 세상 종말의 구체적인 시기를 10월 내지 10월 28일로 보는가? 그들은 구약의 7대 절기가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월절(예수의 죽음), 무교절(예수의 장사), 초실절(예수 부활), 오순절(성령강림), 나팔절(휴거), 초막절(천년왕국)의 등식을 내세우면서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때 재림하실 것이므로..."(1테살 4, 16)라는 성서 말씀을 들어 나팔절에 예수의 공중 재림과 휴거가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 그 시기를 10월 내지는 10월 28일로 본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우리의 양력으로는 9월 28일이지만 역대 기하 30장 3절의 몸바친 사제가 적었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한 달을 늦춰 제사를 지내게 하셨던 내용을 들어 오늘의 상황이 그때와 같기 때문에 은총의 유예기간도 한 달을 늦춘 10월 28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허황된 주장을 한다.

<계속>

요십이 (1000) 김병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일시: 10월24일 16시-25일 17시
장소: 수녀원 본원
대상: 수도성소와 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회비: 5,000원
준비물: 미사, 세면, 필기도구
전화로 신청받음 (051)514-1773

무공해 천연세제 및 삼푸
늘 푸른 집 (전주 원주 대리점)
· 천연세(주방세제)
· 샘이랑(세안·세발 등)
· 아기샘(유아용 비누)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배배012-682-6543

노송신협(직영) 슈퍼

· 좋은 상품을 보다 싸게
· 생활필수품 일체 취급
· 배달 가능(단체 구입 할인)
· 조합원계 구입액 3%를 출자금에
☎ 85-5270 FAX 231-2821

엑스포 커튼

브라인드·커튼

김 정 기(플로리아니오)
소 미 자(디나)

영등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

박정열 치과의원

원장 박 정 열
김선자(베로니카)

경원동 동문 사거리
(민자당사 옆)
☎ 231-4200

명승카인테어·세차장

자동차 부품 일절
자동차 상담 전문

송 주 원(라우렌시오)

전북은행 본점 옆
☎ (0652)75-2270~1
호출기 012-684-0107

전차량 91.92년형 최신행 관광버스로 완비하였습니다.
성지순례나 일반 전세 대절에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전 일 관광

(0652) 88-6666
조 선(안토니오)

뿌리를 찾아서

주현동 성당

- 뚝뚝 뭉쳐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



이리지역은 이조 말기까지 전주군의 영지였다가 1912년 3월에 익산군 남일면과 합병하여 익산면으로, 1931년에 읍으로 승격, 1947년 8월15일에 이리시가 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리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주현동 성당은 주거지역과 함께 시장을 끼고 있는 곳으로써 고 김재덕 신부(1973년 주교 성성)에 의하여 이리지역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해 이리 본당(현 창인동 본당)의 자본당 설립을 계획, 1967년 1월에 현 성당대지(1,437.71㎡)와 지상건물(814.44㎡)을 매입하여 성바로를 주보로 모시고 본당의 설정을 보았다. 설정 당시 본당명을 동이리라 하였는데 1971년부터 주현동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설정 당시 인

화동 2가 외 5개 동과 4개 공소 750여명의 신자가 분리되어 1968년 현재의 성당을 신축하였고 1983년 10월에 사제관과 수녀원을 완공하였다. 본당은 사목화와 평신도 단체를 조직하여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으며 성당 내 사업하는 신자들이 '성상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서로의 상품을 구매하는 등 교우들간에 화합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이외에도 본당 공동체의 결속과 신자들의 신심 양양을 위한 성서공부, 신앙체험 나누기, 기도모임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가끔씩 '의짜교우 초대의 밤'을 개최하여 전 가족 신자화를 도모하며 매주 공업단지외 근로 청소년 교리지도와 교양강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1984년 2월

부터 까리마스회 수녀들이 파견되어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초대 김이환(스테파노) 신부를 비롯, 현 8대 성민호(야고보) 신부가 사목하는 이곳은 2,800여명의 신자들과 20여개의 제단체가 본당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근래에 들어 관할 구역 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신자수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좋은 징조로 보고 있으며 내실있는 본당, 살아 있는 본당,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신자들이 뚝뚝 뭉쳐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발걸음에 본당의 미래가 더욱 밝게 보인다.

명상의 자리

태양 형제의 찬가

지극히 높으시고 온전히 능하시며
한없이 선하신 주여!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
모든 영예와 모든 축복이
주님의 것이옵니다.
이 모두는 오로지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만의 것이옵니다.
사멸할 입술은 하나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치 못하나이다.
내 주시여, 주께서 만드신 만물,
저들이 드리는 온갖 찬미는



주의 것이오니,
맨 먼저 내 친애하는 형제 태양,
낮을 끌어오는 이,
주는 그이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주시나이다.
그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의 광채가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가!
그이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모상.
내 주시여, 자매인 달과 별,
저들이 드리는 온갖 찬미는
주의 것이옵니다.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상·드레스마춤 내어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숙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841-2496, 855-8653

베로니카 플라워 숍

방식꽃꽂이회 전북지회
동·서양란, 웨딩부케, 성전꽃꽂이

국성희(베로니카)
서지숙(파미안나)

☎ 87-8427, 88-8426

동서로삼익피아노

종합 악기 판매장
(피아노, 전자율겐, 음향시스템 전문매장)

김태우(알폰소)
황진숙(안젤라)

☎ 88-7717~8
(동서관동로 다가교 입구)

칸보석

금·은·보석·시계·목주

이동주(도비아)
박영실(헬레나)

인후동 안골 기리현대화 시장 1층
☎ (0652)231-0077~8

교 구 소 식

- ❖ **축! 해상중·고 낙성식**
 - 때 : 10월5일(월) 오후3시
 - 곳 : 신축 교정
- ❖ **군인주일 2차 헌금**
 - 각 본당에서 오늘 실시됩니다.
- ❖ **축! 견진**
 - 때 : 10월10일(토) 오후3시
 - 곳 : 덕진 성당
 - 때 : 10월11일 오전10시30분
 - 곳 : 금암 성당
- ❖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북인사를 위한 기도회**
 - 때 : 10월12일(월) 오후7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김환철신부의 부친 김야고보(89세) 9월25일 선종. 28일 오전10시 전동 성당에서 장례식.
- ❖ **예비 신학생 모임**
 - 때 : 10월11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터 2층

- ❖ **가톨릭 방송인·언론인 연례피정**
 - 때 : 10월11일 오전10시
 - 곳 : 천호 피정의 집
- ❖ **'사랑의 다리' 월레미사**
 - 때 : 10월5일(월) 오전10시30분
 - 곳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10월19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흑인 증거자 마르틴(90분)
 - 내용 : 마르틴은 흑인 성인으로서 평생을 낮은 자리에서 믿음의 힘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의 겸손과 사랑의 생애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 회비 : 1,000원
- ❖ **전자울겐 연주회**
 - 때 : 10월8일(목) 오후7시30분
 - 곳 : 중앙 성당
 - 연주자 : 바바라 하바흐
 - 예매처 : 중앙 성당 사무실
- ❖ **축! 명명**
 - 4일(아씨의 성프란치스코) 김기곤 신부님.

성소모임

- ❖ **인보성체수도회**
 - 때 : 10월11일 오후1시
 - 곳 : 본원 집합-치명자산 (0652) 84-3231
- ❖ **사랑의 씨튼수녀회**
 - 때 : 10월11일 오후1시30분
 - 곳 : 금암동 성당 교육관 (0652) 212-3233
- ❖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 때 : 10월11일 오후2시
 - 곳 :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 84-2276
- ❖ **샬트르 성바로수녀회**
 - 때 : 10월11일 오후2시
 - 곳 : 숲정이 성당 수녀원 (0652) 252-9567

■ 권해드리고 싶은 책 ■

• 호세 신부
정승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페루의 안데스 산맥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흠비야 본당과 베드로 루이스 본당에서의 선교 체험 이야기.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전자파의 유해성

최첨단 과학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지 않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각종 유해 전자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첨단단의 전자제품들이 쏟아내는 전자파. 이들 중 T.V, 전자렌지, 이동통신, 무선전화기 등의 제품에서 파생되는 유해 전자파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광선이다. 전자렌지는 T.V보다 일억배나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켜 음식을 익히며 끓인다. 또 무선전화기도 강력한 전자파를 이용

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것은 몸의 구조상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머리에 대고 매일같이 전자파를 쏘여댄다. 조금 더 편리하고자 하는 욕망. 이렇게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들이 서서히 우리 몸을 죽여간다. 보고 만질 수 없는 유해파가 치명적인 해를 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젠 인간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야 할 때이다. 편리함과 안일함, 이제 이만큼이면 되지 않을까?

샤넬안경원

이순구(도미니코)
정병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 75-0550

B.Y.C.서부 전문점

B.Y.C. 백양, 아미에, 유로파,
차일드림, 베베드림, Y-서즈,
양말, 손수건

이선숙(젬마)
송정원(모이세)
서서학동 공수내 다리 옆
☎ 82-1812

(주)홍경물산 전주지사(대리점)

무공해·무독성 세계
• 천연샘(주방용)
• 맑은샘(세탁용)
• 샘이랑(목욕용)
• 아기샘(아기목욕용)
이종배(요한) 변순옥(막달레나)
☎ 85-5187

수삼, 건삼, 표고, 국산차 등
특산품 일절

진안특산품 유통센터

황용선(바오로)

전주시 태평동1가 61-8
☎ 71-6919

왕궁회관

국성호(스테파노)

전동 성당 서편

☎ 84-1896, 88-1799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2차헌금 있음)

1. "축"본당의 날: 10시미사 후, 각 반대향 율놀이 및 국수잔치.
2. "축"영명: 유프란치스카 수녀님. 많은 기도바람.
3. 구역방문: 6일-동진1반, 7일-동진2반, 8일-아중리, 9일-중노13반, 오후2시부녀.
4. 모임: ①울뜨레아(오늘 10시미사 후) ②성심회, 자모회(6일 어머니미사 후) ③장우회(11일 10시미사 후) ④푸리아(11일 후2시)
5. 주일헌금과 교무금 납부에 정성을 다합니다.
6. 축! 혼인: 신랑-배수석(미카엘) 신부-정명희, 11일 후12시.
7. 금주전례: 중노11, 12반, 차우칭소-중노13, 14반.

☐ 지난주 봉헌금: 868,850원 ☐ 교무금: 2,013,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성지순례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미사시간 변경: 10월6일부터, 저녁미사 7시.
3. 군인주일 2차헌금: 오늘.
4. 회합: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대건회(공식미사 후) ③구역분과회(8일 오전10시) ④울뜨레아(6일 저녁미사 후) ⑤안나회(8일 오전10시) ⑥여성분과회(10일 오전10시) ⑦요셉회, 해설자모임(11일 공식미사 후) ⑧푸리아(11일 오후2시) ⑨청년회(11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오교섭, 독서-신태섭씨 부부.
봉헌-정진기씨 가족,
차주전례: 최옥남, 독서-하병규씨 부부,
봉헌-박중현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37,730원 ☐ 교무금: 522,85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육

1. 푸리아: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변경: 평일 및 주일 저녁미사 7:30, 3.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4. 군인의 날: 오늘 모든미사 중 2차헌금, 5. 봉성제: 6일(화) 6. 한방무료진료(침술): 공식미사 후, 7. 수녀원 신축헌금: 금주봉헌-1,736,000원, 총액-29,939,400원, 8. 성서읽기: 에즈라 전체, 9. 금주청소: 평화의 모후Pr, 10. 금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이육생 ②최영숙, 봉헌-이준희, 이기봉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김봉길 ②오귀남, 봉헌-최상욱, 안복성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59,950원 ☐ 교무금: 15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오늘은 군인의 날! (연중제27주일) 2차헌금있음(로스리오 성월)

1. 회의: ①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반장 전원 참석바람) ②푸리아-오늘 오후2시 ③자모회-10월7일 오전10시30분 ④사목회-10월7일(수)저녁미사 후 ⑤프란치스코3회-다음주일 오후2시.
2. 알림: ①사목회 각 부장님들은 93년도 행사계획 및 예산안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교적정리를 위해 전출, 전입자는 전출,입 즉시 사무실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교무금 미납되신 분들은 바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본당 청년회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하여 10월11일에 일일샷집을 하오니 많은 관심으로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54,650원 ☐ 교무금: 727,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매일미사 30분전: 묵주기도.
2. 오늘 공식미사 후: 푸리아.
3. 오늘 군인주일: 2차헌금(특별한 기도, 관심부탁드립니다)
4. 10월7일: 성서공부 10월6일(화)로 변경합니다.
5. 10월7일(수) 미사: 새벽미사.
6. 청소년사: 1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559,300원 ☐ 교무금: 1,647,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10월은 로사리오의 성월(전교의 달)입니다.
평일미사 30분전에 로사리오기도 있음.

1. 오늘은 군인의 날: 2차헌금 있음. 금주: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제속글라라형제회(오후1시30분) 3. 성서공부개강: 10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8시, 대상: 92년생자, 사무실 접수.
4.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대상-젊은이, 연습-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5. 차주: ①자모회(전10시) ②예비자교리 개강식(공식미사 후) 5. 차주: ①자모회(전10시) ②예비자교리 개강식(공식미사 후) ③일치의 모후Cu(후2시) ④사목회(후8시) ⑤청년연합회 성지순례(개시관참조)

☐ 지난주 봉헌금: 1,803,82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원 규

(경) 해성중·고등학교 축성식 (축) 5일 오후2시30분.

1. 오늘은 군인주일: 2차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2. 구역반회장 연수: 6일 전10시30분, 불참시 대리인 참석.
3. 제대회 월례회: 9일 후2시, 미사-후3시, 회원 가입 환영.
4. 가정방문: 6일 후2시-3구역4반, 8일 전9시-4구역1, 2, 3반, 후2시-4구역4반, 9일 전9시-5구역1반.
5. 회의: 푸리아-오늘 후2시30분, 부녀회-7일 어머니미사 후.
6. 교무금 카드 정리: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람.
7. 축! 혼배: 11일 후1시30분, 신랑-최중규(베드로) 신부-김송희, 장승백이 무궁화 예식장으로 초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910,040원 ☐ 교무금: 2,01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군인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사목회: 오늘 오후8시(성원연립 203호)
2. 구역장월례회: 6일(화) 오후8시.
3. 대건회: 8일(목) 오후8시.
4. 성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5. 미사시간 변경: 저녁미사 오후7시30분(화, 수, 목, 토)
6. 성지순례: 18일(일) 장소-천호, 여산, 나바위 성지, 회비-만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본당미사는 없음.
7. 금주전례: 정 길, 독서-봉헌: 이광숙, 박경주.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전복남, 범영희.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십

※ 오늘은 연중27주일.

1. 모임안내: ①요셉안나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구역봉사자-7일(수) 오전10시30분 ③까리따스-9일(금) 후3시

※ 환자봉성제-5일(화) 10시(오전)
※ 성가발표회-파티마성가대(오후8시 성당에서) 많이 참석하시어 청년성가대의 발전을 이끌어주시다.
※ 젓갈판매-김장철을 맞이해서 본당 부녀회에서 싸고 좋은 것 같은 공급합니다. 많은 열조 부탁드립니다(큰것 15,000 작은것 9,000원)

2. 미사안내: 금주-줄거움의 원천, 화해의 모후, 차주-천사들의 모후, 창조주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184,000원 ☐ 교무금: 2,116,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군인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모임안내: ①푸리아-공식미사 후, ②제대회-5(월) 오전10시 ③자모, 성심, 성모회-9(금) 오전10시 미사 후.
2. 원장수녀님 휴가: 5(월)~19(월)
3. 전진성사 받으실분은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종교개혁 전진교리-매주 토요일 오후5시, 차주모임-울뜨레아, 빈첸시오, 신축헌금봉헌액-120,000원

금주전례: 해설-김홍두, 독서①이영래 ②박근자, 봉헌안내-임해두 부부, 전문기 부부, 차주전례: 해설-강진성, 독서①남상우 ②나화성, 봉헌안내-임수현 부부, 전형섭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324,850원 ☐ 교무금: 1,376,000원